

양적인 왜소함 뛰어넘는 내용의 풍성함

이번호 어린이책 서가를 준비하면서 사실 걱정이 많았다. 책의 분량이 지난번에 비해 절반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장 한장 책장을 넘겨가면서 그것이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적인 왜소함을 뛰어넘어 질적인 풍성함을 안겨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책이야》(김향이 글 · 김유대 그림, 푸른숲)는 책이 들려주는 책 이 야기다. 흔히 책이 들려주는 얘기 하면 독서의 중요성을 나열하는 고답적인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이 책의 지은이는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교훈'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다.

동시집 출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호에는 《고양이가 내 뱃속에서》(권오삼 글 · 사석원 그림, 사계절), 《달팽이는 지가 집이다》(서창우 외 지음, 김용택 엮음, 푸른숲), 《나비가 날아간다》(김용택 글 · 정순희 그림, 미세기) 등 모두 세권의 동시집이 선보였다. 이 책들은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과 생명의 신비를 노래했다는 데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각각의 '분자'는 초등학교생부터 전업시인까지 다양하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른들이 바라본 세상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그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박옥순 기자



어느 날 책이 나에게 말을 걸었어, "우리 친구 하자!"

《나는 책이야》

김향이 글 · 김유대 그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년시절에 읽었던 책에 대한 기억 하나쯤은 오롯이 남아 있게 마련이다. 어느 날인가 언니나 오빠의 책꽂이에서 무심코 뽑아든 책. 그 책을 어둡스런 방안 구석에 얹어 마지막 장까지 넘기던 기억. 내 힘으로 책 한권을 읽어냈다는 가슴 뿌듯한 감정은 그 뒤에도 책을 늘 곁에 두게 하는 힘이 되곤 한다.

이 책의 주인공은 '나는 책이야'라는 제목의 책이다. 주인공은 언제나 도서관에서 바깥세상 나들이를 꿈꾸지만, 번번이 그 소망은 꿈으로 남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 한 아주머니의 품에 안겨 '하얀이'네 집에 도착한다. 하얀이가 책을 손에 들자 책이 인사를 하기도 전에 책 속의 주인공들이 저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고개를 내민다. 책 속엔 불량배 사마귀를 용서한 개똥벌레, 소각장까지 끌려가 꿈을 포기할 뻔했던 비닐봉지 미끈이, 마음 착한 뱀뱀지, 꽃을 피워낸 면장갑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책과 하얀이는 이런 이야기들로 밤을 지새며 마침내 좋은 친구가 된다.

이 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진부한 교훈으로 끝나버릴 주제를 '액자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말끔하게 포장한 데 있다. 또 책 속의 이야기와 책 밖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림들은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초등 저학년). | 362-4457 | www.prunsoop.co.kr
푸른숲/B5변형/120면/6500원



시공주니어/A5변형/102면/6500원

총이의 잠자리

최기영 글 · 김성욱 그림

《동화는 내 친구》 시리즈 제27권. 천진무구한 아이들의 마음을 잔잔히 펼쳐 보인 열편의 동화를 모았다. 아버지 약에 쓸 꿀을 몰래 훔쳐 먹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도리어 실수를 저질러 일을 크게 만들고, 장에 따라가서 새 물건을 사 달라고 떼쓰는 아이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낮은 풍경 속에 아이들의 순수한 내면을 세겨 넣었다(초등 저학년).

| 335-0506

논장/A5/120면/7000원

컴퓨터 천재 벤의 대모험(4~5권)

안드레아스 슈뢰터 지음

이우성수의 옮김

'컴퓨터 모험소설'이란 이름에 걸맞게 컴퓨터와 관련한 신기한 모험들이 펼쳐진다. 《타임터널의 비밀》은 수학여행 중에 낯선 시간 속에 빠져버린 벤과 친구들이 가상의 예술도시 플로렌스에서 펼쳐지는 필사의 탈출작전. 《2051년》은 브레인-스캐닝이라는 실험을 하다가 갑자기 2051년에 와버린 아이들이 암울한 미래 세계에서 펼쳐는 숨막히는 추격전이다(초등 고학년). | 745-4823

김영사/B6변형/264면 내외/각 7500원

김영사/B6변형/264면 내외/각 7500원

무던이

이미륵 글 · 윤문영 그림 | 정규화 옮김

《우리들의 작문교실》 시리즈 제2권. 이미륵의 자전적 소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펴냈다. 가난한 조각인의 딸 무던이는 지

주의 아들 우물이를 좋아하게 되지만, 결혼을 꿈꿀 수도 없는 완강한 신분의 벽에 부딪힌다. 누구 하나 미워할 수 없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통해 윤리와 가치관, 사회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전통의 의미가 되새겨보게 한다(초등 3학년부부터).

| 336-6288

계수나무/A5신/158면/7000원

우리들의 노래

채지민 글 · 이상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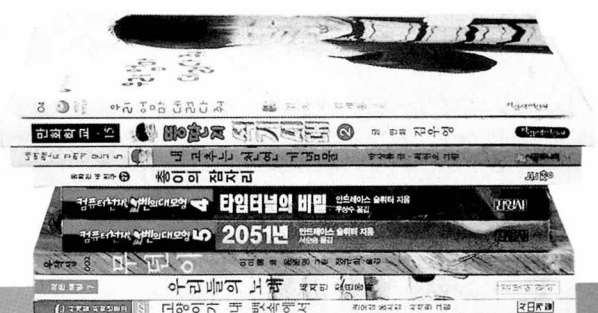
《작은 책방》 시리즈 제7권. 청각장애가 있는 두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보통의 아이들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을 그린 장편동화. 소연이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마음속엔 늘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다. 다섯살 때부터 듣지 못하게 된 민태는 자신에게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장애인 친구들에 대해 이해하게 된 아이들과 소연이의 노력으로 민태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초등 고학년). | 322-6012

김빛어린이/A5신/154면/6000원

고양이가 내 뱃속에서

권오삼 글 · 사석원 그림

《사계절 저학년 문고》 제22권. 분단문제와 통일, 사회문제 등 진지한 문제의식을 던져온 지은이가 펴낸 저학년을 위한 동시집.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아이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감정, 아이들이 바라보는 다양한 세계를 아름다운 상상력과 감성으로 정감 있게 표현했다. 표제작을 비롯해 모두 35편의 동



우리 엄마 데려다 줘 · 외

김옥 글 · 김재홍 그림

표제작을 비롯해 모두 네편의 창작동화를 담았다. 《거인의 잠》은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우리 엄마 데려다 줘》는 집 나간 엄마를 그리워하는 1학년 '다솔이'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 결손가정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의 회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초등 저학년). 21세기에 나타난 원시인들이 펼치는 기상천외한 모험을 담은 만화 《똥단지 석기시대 2》(김우영 글 · 그림)도 나왔다(초등학생). | 337-2004

파랑새어린이/A5변형/128면/7000원

내 고추는 천연기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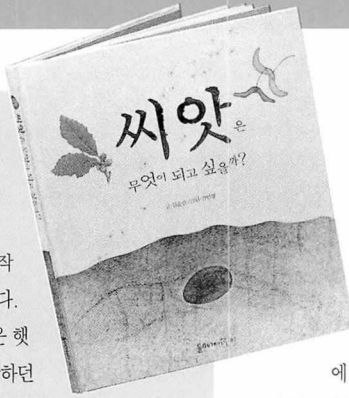
박상률 글 · 최민오 그림

《네버랜드 꾸러기 문고》 제5권. 여름 방학이 끝나자 사내아이들은 너도 나도 '고래잡이'를 했다며 자랑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준영이는 고래잡이가 뭔지 몰라 어리둥절해한다. 심지어 엄마까지도 고래잡이를 들먹인다. 주인공 '준영이'를 통해 포경수술에 얽힌 이야기와 여러 정보를 재밌게 다루고 있다. 익살과 유머가 한데 어우러진 그림도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초등 저학년). | 598-5601 | www.singongsa.com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됐어요!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김순한 글 · 김인경 그림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 이 책은 이런 물음으로 시작한다. 책을 펼치면 작은 씨앗 하나가 땅 속에 웅크리고 있다. 어느덧 봄비가 내려 퐁퐁 언 땅을 녹인다. 그 위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려앉으면 그때부터 씨앗은 조금씩 변해간다. 단단하던 씨껍질이 부드러워지고 부풀어오르더니 갑자기 툭 터지면서 하얀 뿌리가 꿈틀대며 밀고 나온다.

이 책은 작은 씨앗 한 알이 싹 트고 자라서 어여쁜 꽃으로 피기까지의 과정을 씨앗의 관점에서 보여준다. 짙은 글은 그림을 더욱 풍성하게 보여주고 그림은 씨앗의 변화과정에 맞춰 입체적으로 바뀐다. 씨앗이 웅크리고 있는 땅속도 계절에 따라 모두 다르게 표현돼 씨앗과 그 씨앗을 키워내는 땅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씨앗의 모습들은 작고 여린 씨앗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숲을 이루는지, 그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유감없이 보여준다(유아). | 3672-1225
 돌베개어린이/A4변형/32면/7500원



| 520-9145
 | www.daekyobook.co.kr
 대교출판/B5변형/96면/6500원
아빠가 학교 다닐 적에
 김학재 글 · 홍진우 그림

아빠의 어린 시절 모습을 31편의 짧막한 이야기에 담은 만화. 오늘도 아빠는 매섭게 야단을 치십니다. 잘못을 했다 싶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호통을 치시지요. 그런 아빠도 어렸을 때는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러다 울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목욕탕에서 생긴 일’ ‘채변봉투와의 전쟁’ 등 아빠와 아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재밌게 표현된 말과 그림들 속에 담았다(초등학생).

| 714-0756 | www.chungangbook.com
 중앙출판사/B5변형/196면/6500원

이문열 이희재
만화 삼국지 5
 나관중 글 · 이희재 그림
 | 이문열 평역

《이문열의 평역 삼국지》를 어린이들을 위해 새롭게 구성한 만화. 모두 10권으로 기획됐으며, 이번에 제5권 ‘세번 천하를 돌아봄이여’가 나왔다.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가운데 하나인 유비의 삼고초려와 공명의 천하삼분 계를 만날 수 있다. 삼국지 역사탐방에는 고대 중국의 병법을 소개하고, 공명의 천하삼분 계획과 세력 조직도 등을 실었다(초등 고학년).

| 3475-3844 | www.i-seum.com
 아이세움/B5/224면/8500원

3D 종이접기 주라기 공민
 소영명 지음

‘아빠와 함께 종이로 접는 3D 입체 공룡’이란 부제를 단 이 책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디프로도쿠스, 티라노사우루스 등 8종의 공룡에 대한 설명과 종이접기 방법을 소개한다. 각 단계별로 상세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공룡을 접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배운 작품을 응용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부록으로 종이접기 재료도 제공한다(초등학생). | 313-2729

현암사/B5변형/120면/9800원
모두 잠이 들어요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글 · 진 샬러 그림
 | 나희덕 옮김

〈비룡소 아기 그림책〉 시리즈 제5권. 잠자리 그림책의 고전으로 1944년 칼데콧 상을 받은 그림책이다. 밤이 오자, 아기동물들과 사물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한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 엄마 품에 혹은 친구들끼리 모여든다. 새, 토끼, 양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과정을 부드러운 크레용화 속에 담았다(2살부터). | 3443-4318

비룡소/B6변형/24면/5000원

우산
 아시마타로 글 · 그림 | 정재선 옮김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방식인 홀로서기를 ‘우산’이라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소재로 접근해 풀어간다. 우산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는 어린아이의 심리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잔잔한 느낌의 파스텔화 속에 담았다(5세부터).

| 562-1800 | www.miraemmb.com
 미래M&B/A5변형/34면/7000원

벤의 꿈 · 외
 크리스 반알스버그 글 · 그림 | 김영하 옮김
 지리책을 펴 들고 세계의 유적에 대해 공부하던 벤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주체할 수 없는 잠의 늪으로 빠진다. 그 사이 빗방울을 점점 굵어지고 벤은 어느새 자유의 여신상, 빅벤, 피사의 사탑 등 세계의 유적지들 사이를 떠다닌다. 흑백톤의 펜화 속에 꿈과 현실을 행복하게 넘나드는 모습을 담았다. 리버벤드라는 전형적인 미국 서부 마을에서 벌어지는 하디 보안관의 활약을 그린 《리버벤드 마을의 이상한 하루》도 나왔다(유아 · 초등학생).

| 927-6790 | www.kidsmunhak.com
 문학동네어린이/A4변형/32면/8000원

나비가 날아간다
 김용택 글 · 정순희 그림
 〈공요〉 〈개구리가 귀뚜라미를 쫓아요〉 〈고



시가 수목화 속에 어우러진다(초등 저학년). | 736-9380 | www.sakyejul.co.kr

사계절/A5변형/96면/6500원
달팽이는 지가 집이다
 서창우 외 지음 · 김동택 엮음

섬진강 마암분교 교사 김동택과 네명의 아이들이 엮은 동시집. 어린이들이 쓴 60편의 시와 그림이 한데 어우러져 순박하면서도 고단한 아이들의 일상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진다. 자연에 대한 감상, 작고 귀여운 생명에 대한 사랑, 사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 등 아이들의 해맑은 마음을 읽을 수 있다(초등 저학년).

| 364-0487 | www.prunsoop.co.kr
 푸른숲/B5/84면/6500원

토끼전 · 두껍전
 초록글연구회 엮음 · 송진희 그림

〈새롭게 읽는 우리 고전〉 시리즈 제6권. 《토끼전》과 《두껍전》을 간단한 설명을 덧붙여 새롭게 펴냈다.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대표적인 판소리게 풍자소설 《토끼전》은 아무리 궁지에 몰리더라도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고 맞선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동물을 의인화한 설화형식의 소설 《두껍전》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일깨워준다(초등 저학년). | 3141-1179 | www.chungsol.co.kr

청솔/A5변형/172면/6500원
똥이 형수와 오줌싸개 시동생
 박신식 글 · 김경희 그림

〈채우리 저학년 문고〉 제4권. 늦둥이로 태

어나 형들과의 나이 차이가 스무살이나 나는 주인공 민재는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고 작은형 집에서 ‘똥이 형수’와 살아가게 된다. 조금은 엉뚱하지만 민재를 사랑으로 보살피주는 똥이 형수와 똥이 형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오줌싸개 시동생’ 민재가 친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섬세한 심리묘사로 표현했다. | 828-8873

채우리/B5변형/124면/7000원
하늘나리 꽃밭의 무당벌레 · 외
 김정희 글 · 민문옥 그림

동화를 읽으면서 곤충은 무얼 먹고 사는지, 어떻게 자식을 낳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지 등 생태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곤충생태동화. 따개비, 갯지렁이, 농개, 말미잘 등 갯벌을 배경으로 한 동물들의 생태를 담은 《빨간 집게다리가 최고야》(김정희 글 · 정창익 그림)도 나왔다(초등 저학년).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건 결혼하고 싶어서예요!

《무슨 뜻이지?》

김동광 글 · 김미영 그림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울룩불룩한 보도블록, 야구 심판의 요란한 몸짓은 모두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구리나 키퍼라미의 울음소리, 꿀벌의 춤, 개미가 뿜어내는 페몬, 카멜레온의 보호색 등 동물들도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독개구리나 독버섯은 일부러 화려한 색을 띠고 '위험하니 나를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하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지는 것은 짝짓기 시기를 알려준다.

이 책은 아이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표지와 패턴, 주의·경고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이나 글이 왜 편리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준다. 지은이는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뜻을 전할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감각기관과 상황설정을 통해 다양한 소통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사회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놓은 정교한 신호체계라는 점도 일깨워준다(초등학생, 발명왕 요철이의 달나라 모험을 담은 만화 <요철 발명왕 달 여행을 떠나>(윤승운 글 · 그림)도 나왔다. | 3475-3843 | www.i-seum.com 아이세움/A4변형/32면/7000원



왜 나라마다 시간이 다를까?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까? 등 시간과 계절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지구가 해 둘레를 돌면서 생기는 계절의 변화 등 신비한 자연법칙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라마다 다른 시간과 계절에 관한 재밌는 얘기들도 들려준다(초등학생).

| 3142-6611

| www.daseosure.co.kr

다섯수레/A4/32면/7500원

지구에서 양파 구하기

리오넬 지오르다노 글 · 그림

황광수 옮김

<그림책과 어린이> 시리즈

제8권. 칼라브로스 별에 사는 엘리엇과 주옥스 형제는 음악을 좋아한다. 어느 날 엄마가 지구에 가서 양파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다. 하지만 두 아이는 엄마의 심부름을 잊고 신나게 놀다 그만 돈을 다 써버린다. 이제 어떻게 양파를 구할까? 아이들은 궁리 끝에 거리 음악회를 벌이고 덕분에 양파 한자루를 얻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유아). | 722-5374

케림북스쿨/A4/26면/6800원

사를 페로가 들려주는

프랑스 옛이야기

사를 페로 글 · 광선영 외 그림 최내경 옮김

전세계에서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옛이야기를 나라별, 작가별로 완역 정리한 <완역 옛이야기 그림책> 시리즈 제1권. <빨간 모자> <잠자는 숲 속의 공주> <정화 신은 고양이>

이 <푸른 수염>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을 선별해 엮었다. 하나의 작품이 끝날 때마다 교훈을 곁들인 이야기를 읽고, 큼직한 판형 속에 다양한 느낌의 그림들을 담았다(5~7세).

| 3670-1862 | www.woongjin.com

웅진닷컴/A4변형/140면/13,000원

엄마는 언제나 내 친구야

샘 맥브래튼 글 · 킴 루이스 그림 박찬순 옮김

푸른 초원에 단둘이 사는 엄마 여우와 아기 여우는 둘도 없는 친구다. 둘은 하루종일 풀밭을 뛰어다니며 함께 놀이를 즐긴다. 어느덧 노을이 비끼는 저녁 무렵, 엄마 여우는 날이 어두워져 그만 들어가자고 하고 아기 여우는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쓴다. 둘도 없는 친구면서 티격태격하고, 갈등하는 아기 여우와 엄마 여우의 밀고 당기는 마음의 줄다리기를 세심하게 잡아냈다(3~7세).

| 2000-6234 | www.jbookmarket.co.kr

어린이중앙/A4변형/26면/8000원



“마음을 열면 사랑이 보여요”

엄소 메헤헤와 개구쟁이들

손춘익 글 · 유승정 그림

평생을 어린이를 위한 동화 쓰기에 바친 지은이의 유고 동화집으로

로 사람과 동물, 자연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뜻깊은 사랑이 담긴 8편의 단편을 모았다. 표제작은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지내던 늑대 엄소의 죽음과 이를 슬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정겹게 담은 작품이다. 아이들의 둘도 없는 친구 늑대 엄소 '메헤헤'를 잃은 아이들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선생님들은 어느 날 새끼엄소를 살피서 우리 속에 사다 놓는다.

<재미있는 바깥 세상>은 작은 토끼굴에서 태어나 자란 다섯 마리 토끼 가운데 맏형 토끼의 첫번째 세상 구경 이야기다. 좁은 굴 속을 빠져나온 맏형 토끼는 이제껏 본 일이 없는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갖가지 동식물의 모습에 흠뻑 취한다. 하지만 사나운 여우에게 쫓기는 등 약육강식의 냉정한 순리도 배우게 된다. 마지막에 실린 <천사님이 계시네요>는 지은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본 듯한 작품이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천사님'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 줄 아는 사랑의 또다른 이름임을 깨닫게 한다(초등 저학년). | 3142-6773 | www.uriedu.co.kr

우리교육/A5변형/168면/6500원

추) 등 향토성이 짙게 배어나는 시 15편을 담았다. 표제작은 나비가 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그렸다. 나비는 “영경꽃에게도 가고” “나팔꽃에게도 가고” “달개비꽃에게도 날아간다.” 그 모습을 화자는 예쁘게 바라보다가 마지막 연에 이르러 “나비는 어디에서 살까?” 하며 갑자기 질문을 던진다. 이렇듯 이 책에 실린 시들은 서정적이면서도 어린이들의 동적이고 장난스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초등학생).

| 560-0900

미세기/A4변형/34면/8000원

소인국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과학 여행

존 판돈 글 · 스티브 프리커 외 그림 장석봉 옮김

변기의 물을 내리면 그 물은 어디로 갈까?

편지랑 신문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올까? 등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전기, 신문, 일기예보, 물, 음식, 꽃, 텔레비전, 인터넷 등 모두 13가지로 나눠 모든 주제마다 소인국 사람들이 등장해 차근차근 주제를 풀어간다(초등 3학년부부터).

| 3443-4318 | www.bir.co.kr

비룡소/A4변형/48면/8500원

생각을 모으는 사람

모니카 페트 글 · 안토니 보라틴스키 그림

김경연 옮김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물음에 지은이는 생각을 모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루통씨라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아저씨는 매일 아침 가죽 끈이 반질반질해진 늑대 배낭을 메고 생각을 모으러 다닌다. 저녁무렵이면 아저씨의 배낭은 예쁜 생각, 미운 생각, 즐거운 생각, 어리석은 생각 등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고, 아저씨는 그것들을 정리해 화단에 정성껏 심는다(유아·초등학생).

| 363-6972 | www.pulbit.co.kr

풀빛/A4/32면/7500원

해는 왜 아침에 떠오를까요?

브렌다 윌폴 지음 | 이수영 옮김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시리즈 제22권.

계절은 왜 바뀔

까?

